



이은우(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 이야기는 문서 전승의 발전에 관련해서뿐 아니라 그 역사적 함의에 관해서도 오랫동안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어색하거나 내용이 반복되거나 논리적으로 단절되는 면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주장대로 아주 멀리에서 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한 언약이 필요 없었다. 본문에서 기브온과의 조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과 ‘회중 족장들’과 ‘여호수아’로 교차해서 나타난다. 7절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이 자신들 가운데 거주하는

* 이 논문은 2022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것 같다고 언급한다. 6절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히위 족속에게 답하고 8절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14절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무리가 양식을 취하고 1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데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한다. 3-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으로 반복해 나타나지만, 16-17절에서는 백성들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과 조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난다. 21절에서 회중 족장들은 기브온 족속을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자가 되게 한다. 23절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자가 되게 한다. 2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야훼께서 선택한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야훼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길는 자로 삼았다고 말한다.¹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다양한 시도를 했다. 뮐렌브링크(K. Möhlenbrink)는 이 본문을 오경의 자료에서 독립된 다른 전승들에 기반한 두 개의 이야기로 구분했다. 하나는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길갈에 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고 그들이 야훼 제단의 종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나 기브온 족속의 운명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전승이다.² 반면에, 다수의 학자는 이 본문에서 전통적인 오경 자료를 찾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이 본문의 기본층이 J, E 자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9장 15절, 17-21절의 회중 족장들과 관련된 본문을 P 자료로 구분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의 구원 행위와 이스라엘의 정복에 드러난 야훼의 위대하심에 관한 기브온 족속의 고백이 포함된 9장 1-10절, 24-25절과 여호수아

1 J. Liver, "The Literary History of Joshua 9," JSS 8 (1963), 227-228.

2 K. Möhlenbrink, "Die Landnahmesagen des Buchs Josua," ZAW LVI (1938), 241-45.

의 최종 판결이 기록된 27절은 신명기 사가나 신명기 학파의 편집으로 돌렸다.³ 노트(M. Noth)는 이 본문을 신명기 사가 이전의 초기 본문(수 9:3-15a)과 바빌론 포로기의 신명기 사가의 본문(수 9:22-27)과 신명기 사가 이후의 본문(수 15b-21)으로 구분했다.⁴ 리버(J. Liver)는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나는 기원론(etiological concerns)과 신명기 20장과 사무엘하 21장과 솔로몬의 성전 노예들에 관한 본문들의 비교를 통해 신명기 이전의 왕정 초기(사울) 전승이라고 주장한다.⁵ 프리츠(V. Fritz)는 이 본문에서 신명기 사가의 기본 이야기(9:3-7, 9a, 11-15a)와 후대의 신명기 사가의 편집적 확장(9:1, 2, 16, 17, 22-26)과 후대의 제사장적 보충(9:15b, 18-21, 27)과 최종 첨가(9:8, 9b, 10)로 구분했다.⁶ 넬슨(R. D. Nelson)은 이 본문을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의 조약을 설명하는 Dtr 1 기본층(9:3-15)과 기브온 족속의 강등을 설명하는 Dtr 2 확장층(9:16-27)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여기에 신명기 사가의 편집(9:1, 2, 6, 9, 10, 15, 24, 27)이 이루어졌고, P와 같은 첨가(9:15b, 18-21)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⁷ 크나우프(E. A. Knauf)는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 9장 3-15a절을 포로 이후의 신명기 사가의 본문으로 15b-21절을 후기 제사장 본문으로 22-27절을 포로 이후의 신명기 사가의 본문으로 구분한다.⁸ 에덴버그(C. Edenburg)는 여호수아 9장과 창세기 34장과 신명기 7장, 8장, 20장, 29장과 사무엘하 21장의 비교를 통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동맹 이야기의 초기 전승은 바빌론 포로기에 형성되었고, 기브온의 책

3 C. Steuernagel, *Das Buch Josua* (Göttingen, 1899), 241-243; S. R. Driver, *Introduction to the Literary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1913), 167; C. A. Simpson, *The Early Traditions of Israel* (Oxford, 1948), 301-302.

4 M. Noth, *Das Buch Josua* (HAT 1/7), (Tübingen: J.C.B. Mohr, 1953), 53-56.

5 J. Liver, *위글*, 227-43.

6 V. Fritz, *Das Buch Josua* (Tübingen: J.C.B. Mohr, 1994), 101-107.

7 R. D. Nelson, *Joshua* (OTL;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23-129. 볼링과 버틀러도 넬슨과 비슷한 입장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R. G. Boling, *Joshua* (AB 6; 1982), 266-72; T. C. Butler, *Joshua 1-12*. WBC 7A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433-454.

8 E. A. Knauf, *Josua* (ZBK AT 6; Zürich: Theologische Verlag Zürich, 2008), 90-95.

략과 관련된 내용의 대부분이 후기 신명기 사가에 의해 고안되어 포로 이후의 헤렘 규정에 대한 풍자로 기록되었고, 여기에 육경의 맥락에서 제사장적인 개정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한다.⁹ 이삭(Y. Lee-Sak)은 이 본문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와 편집 비평적인 연구를 통해 이 본문이 기브온의 지위와 그들의 성소를 폄훼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으로 그들을 페르시아 시대의 예후드 공동체와 동화시켜서 포로 이후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세뇌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¹⁰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고려할 때 이 본문의 형성 과정에 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노트 이후에 여호수아에서 오경의 J, E 자료를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초기 전승, 특히 기원론적인 요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원래의 형태가 아니라 편집자에 의해서 수정된 형태라는 것이고, 최근의 동향은 포로 이후의 편집층에 관심을 기울인다. 넷째, 이 본문 안에서도 신명기(D)적인 편집과 제사장(P)적인 편집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문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여 이 본문의 초기 전승을 찾아보

9 C. Edenburg, "Joshua 9 and Deuteronomy, an Intertextual Conundrum: The Chicken or the Egg?", ed. K. Schmid and R. F. Person, JR.,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13-132. 기타 헤렘을 위한 연구로는 김상래, "아이 성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만인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4호 (2012), 72-95;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장)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89집 (2019), 1-25; 방기민,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27권1호 (2021), 61-96;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27권3호 (2021), 131-154이 있다.

10 Yitzhak Lee-Sak, "Polemical Propaganda of the Golah Community against the Gibeonites: Historical Background of Joshua 9 and 2 Samuel 21 in the Early Persian Period," *JSOT* 44 (2019), 115-132; 여호수아 9장을 서사 비평의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연구한 국내논문으로는 김성수, "만약 이스라엘이 야훼께 물었다면: 기브온 사건(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이방인의 진멸과 구원," 「성경과신학」 88집 (2018), 23-60이 있다.

고 최종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편집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2. 여호수아 9장의 형성사 연구

1) 초기 전승: 구두 전승

가나안 정복 시기의 이스라엘에는 연감이나 매일의 기록을 유지할 제도적인 구조가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시대까지는 그 역사적 기억을 보전하기 위해 구두 이야기꾼들(oral storytellers)에게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¹¹ 따라서 기브온 이야기의 문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기브온 이야기의 초기 전승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전승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일종의 민담이었고 다른 요소는 없었는가? 이 전승은 역사적 실체에 기반을 둔 것인가?¹²

다수의 학자는 이 본문이 현존하는 제도의 기원(etiology)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¹³ 일부는 솔로몬 시대의 기원론적 이야기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나안의 성전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후손이 에스라-느헤미야에 언급된 נתינים(느티님/느디님)이나 “솔로몬 신하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한다(에 2:43-58; 느 7:46-60).¹⁴ 실제로 여호수아 9장 27절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신분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נתן(나탄) 동사를 사용한다. 다른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좀 더 이른 시기의 기브온 산당(왕상 3:4)이나 여리고 근처 길갈의 산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학자는 여호수아 9장에 기브

11 T. C. Butler, 위의 책, 437.

12 J. Liver, 앞글, 233.

13 H. Gressmann, *Die Anfänge Israels* (Göttingen, 1914), 149; A. Alt, “Josua,” *ZAW* LXVI(1936), 19-20; K. Möhlenbrink, “Die Landnahmesagen des Buchs Josua,” 241-242; M. Noth, *Josua2* (Tübingen, 1953), 53.

14 J. Liver, 앞글, 233.

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나무 패는 자들과 물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두 가지의 초기의 기원론적 전승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⁵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의 여호수아와 기브온 근처의 가나안 다섯 왕과의 전쟁 이야기는 조약을 맺었다는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10장의 이야기는 기브온 족속의 낮은 지위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며, 여호수아 9장을 제외하면 구약성경 어디에도 기브온 족속이 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기원론의 원형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고 동맹이 되었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기브온의 속임이나 낮은 지위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기원론에 첨가되어 확장된 이야기로 보인다.¹⁷ 사무엘하 21장의 사울이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진술 역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이 초기의 전승일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⁸ 리버는 본문에 나타나는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의미하는 נְשִׂימִים(느시임/족장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와 민수기에서는 이스마엘과 미디안의 유목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창 17:20; 25:16; 민 25:18), 지파들의 족보를 언급하는 역대상 5장 6절에서는 정착 이후 반유목민의 지위를 유지했던 르우벤 지파와 관련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이 전승의 초기 상태를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¹⁹ 노트 역시 이 본문에 나타나는 נְשִׂימִים(나시/족장)이라는 표현과 עֵדָה(에다/회중)이라는 표현은 포로 이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²⁰ 사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여호수아 9장 15b, 18-21절은 제

15 R. D. Nelson, 위의 책, 124; J. Liver, 윗글, 233-244.

16 J. Liver, 윗글, 233-234.

17 여기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18 윗글, 235.

19 윗글, 235-237.

20 M. Noth, 위의 책, 55-57.

사상적 편집(p)으로 확장되어 현재는 그 초기 형태를 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을 통해 그 초기 전승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²¹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본문은 회중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다는 초기 구두 전승에 뿌리를 두었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내용이나 기브온 족속이 노예 신분으로 강등되었다는 내용이나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는 내용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후에 편집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본문에서 구두 전승을 따로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여호수아 9장의 본문 분석을 시작할 때 이 본문 형성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요시아 시대의 신명기적인 편집층(수 9:3, 6, 11-15a)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의 바탕에 있는 기본층은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여호수아 9장 3절은 여호수아 6-8장의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 이야기와 연결되는 기본층이다. 여호수아 10장 2절은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 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고 묘사하지만,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의 운명을 피하고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평화 조약의 길을 선택한다. 6절에서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음을 밝히고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한다. 여호수아 9장 6절과 11절에서 반복되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כרתוֹלֵנוּ בְרִית)라는 표현과 15절의 ‘그(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고’(וּיִכְרַתְּ לָהֶם בְּרִית לְחַיִּוֹתָם)라는 표현에서 전

21 이 부분을 P 전승 혹은 제사장적 편집으로 구분하는 연구로는 R. D. Nelson, 위의 책, 124; V. Fritz, 위의 책, 106; C. Edenburgh, 윗글, 132 등을 참고하라. 여기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치사 5와 결합한 기브온 족속이 종속적인 입장에 있음을 암시한다. 동등한 입장의 계약에서는 전치사 55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²² 사무엘 상 11장 1절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כרת לנו ברית ונעבדך)고 일종의 봉신 조약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신명기 20장 10-15절의 멀리 있는 성읍들과의 전쟁 규정과 관련이 깊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은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겨야 한다.²³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는 기브온의 속임수가 알려지기 전에 이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한다. 1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조약을 맺었다고 말한다.²⁴ 이들은 신명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다. 11절에서 그들은 기브온 족속의 장로들과 모든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백성의 대표임을 밝힌다. 이것은 여호수아 9장의 초기 전승처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조약이 왕이나 백성의 한 명의 대표가 아닌 족장들과 백성의 대표들이 체결한 것임을 보여준다.²⁵ 그들은 장로들과 주민들의 권유로 여행을 위한 양식을 준비했으며,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임을 밝히며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한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 양식이 조약 비준을 위한 식사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⁶ 12-13절에서 이들은 긴 여행으로 말미암아 이 떡이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찢어졌고 옷과 신도 낡아졌다고 고백한다. 15a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

22 A. J. Soggin, *Joshua* (OTL; London: SCM Press, 1972), 104.

23 J. Liver, *룻글*, 238.

24 *룻글*, 238-239.

25 T. C. Butler, *위의 책*, 449.

26 *위의 책*, 449.

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는다. 이 기본층은 신명기 20장 15-18절의 먼 나라와의 헤렘규정과 관련된 편집층이다. 그럼 이 신명기적 편집층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0장 15-18절은 신명기 20장의 전쟁 규정 맥락에 나타나고 20장 10-14절의 헤렘 본문에 이어진다. 신명기 20장 10-14절은 헤렘 규정의 기본층으로 성읍을 정복하고 그 성읍의 남자들은 다 쳐 죽이고 여자와 어린이와 가축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본문은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 두루마리에 속하는 기본층이다. 다수의 학자는 신명기 20장 15-18절은 이 기본층에 후대에 첨가된 편집층이라고 주장한다.²⁷ 신명기 20장 10-14절이 신앗수르 시대의 제국주의의 전쟁관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토착민들에 대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15-18절은 요단 건너편 및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영토까지 국경을 확장하고 주변 세력을 흡수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요시야 시대의 열망이 반영된 편집층이라 할 수 있다. 여호수아 9장의 이 첫 번째 신명기적인 편집층(수 9:3, 6, 11-15a)은 기브온 족속을 자신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 속에서 신명기 20장 15-18절과 함께 요시야 시대에 형성된 것이다.

3) 바빌론 포로기의 신명기적인 편집층(수 9:1-2, 9b-10)

여호수아 9장 1-2절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에서 승전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의 저항을 위한 동맹에 관해 기술한다. 그들은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다. 그들은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해변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요

27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88), 199-200; R. D. Nelson, *Deuteronomy: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2), 246-247.

단 건너'를 의미하는 **בעבר הירדן**(브에베르 하야르덴)은 이 문맥에서는 개역개정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요단 서쪽”을 의미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여섯 나라의 목록은 구약에 나타나는 열아홉 개의 목록 중에 신명기 20장 17절과만 일치한다.²⁸ 이 두 구절은 앞 단락과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의 이야기를 요약하며 여호수아의 새로운 전쟁 이야기를 도입하는 전형적인 편집 어구이다. 이 구절들은 9-11장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전쟁 이야기의 도입부로 11장 17절까지 흐름이 이어진다.²⁹ 프리츠는 이 두 구절을 신명기 사가의 본문에 첨가된 후대의 신명기적 편집(Red D)으로 구분한다.³⁰ 여호수아 5장 1절에 나타나는 가나안 왕들의 단순한 두려움이 이 두 구절에서는 요단 서쪽 전체 왕들의 적대적 연합 활동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10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왕들의 동맹 전쟁 이야기와 연결되는 편집적 첨가 부분이다. 백성의 대표가 장로들인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9장 3-27절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가나안의 군주제를 반영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9장 1-2절과 10-11장과는 구분되고 오히려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여호수아 2장, 6장의 라합의 이야기와 연결된다.³¹ 여기에 나타나는 “듣고”(שמע)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의 설화 구조를 이어주는 중요한 표현으로 앞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뒤 이야기를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수 2:10, 11; 5:1; 7:9; 9:1, 3, 9, 16; 10:1; 11:1; 22:11-12).³² 이 두 구절은 9-11장으로 이어지는 정복 전쟁 설화의 서론일 뿐 아니라, 여호수아 전반에 이어지는 땅 회복 모티브를 연결하는 어구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벨론 포로기의 편집적 첨가이다. 9b-10절의 기브온 족속의 신앙고백은

28 T. C. Butler, 위의 책, 444.

29 R. D. Nelson, *Joshua*, 132.

30 V. Fritz, 위의 책, 104.

31 R. D. Nelson, 위의 책, 132-133.

32 T. C. Butler, 위의 책, 444.

여호수아 2장 9-11절의 라합의 고백과 언어를 공유하며 애굽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승리한 내용을 반복하며 야훼의 이름을 열방이 두려워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넬슨은 이 구절을 신명기 사가의 편집 본문으로 구분한다.³³ 프리츠는 이 구절을 가장 후대의 첨가로 간주한다.³⁴ 아모리의 두 왕에게 승리한 내용과 이 일로 천하 만민이 야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내용은 신명기 2장 24-25절과 2장 26절-3장 11절과 4장 46-47절에도 반복되는 표현이며 바빌론 포로기의 신명기적인 편집본문으로 이스라엘에 국가와 영토 회복의 희망을 제시하는 본문이다.

4) 포로 이후(페르시아 제국 초기)의 신명기적 편집층(9:4-5, 7-9a, 14, 16-17, 22-24)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빌론 포로기까지 형성된 기브온과의 조약과 영토 회복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그 결과로 그들이 노예 신분이 되는 내용이 후대에 편집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여호수아 9장 4-5절의 표현은 9장 12-13절의 표현의 반복이다. 물론 4-5절에는 헤어진 전대와 헤어져 기운 포도주 부대가 먼저 나오고 낡아 기운 신과 낡은 옷과 곰팡이가 난 떡이 나중에 나오지만, 12-13절에는 곰팡이가 난 떡이 먼저 나오고 찢어진 가죽 부대와 낡은 옷과 신이 나중에 나온다.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두 이야기는 반복이다. 4-5절은 12-13절의 기본층의 표현을 반복하면서 ערמה(오르마/찌)라는 단어를 추가해 그들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ערמה라는 단어는 동사 형태로 구약에 다섯 번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3장 22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사용하는데 사울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화자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33 R. D. Nelson, 위의 책, 124.

34 V. Fritz, 위의 책, 107.

의미를 포함한다. 욥기 5장 13절과 시편 83편 4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잠언 15장 5절과 19장 25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여호수아 9장 4절 이외에 네 번 형용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잠언 1장 4절, 8장 5절과 12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난다.³⁵ 여호수아 9장에서는 **הַחִוִּיתִים**라는 단어가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질 전대와 찢어진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다는 표현과 결합해 멀리서 온 것처럼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찌”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9장 4절을 제외하면 모두 아홉 번 구약에서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21장 14절과 사무엘상 23장 22절을 제외하면 성문서에서 일곱 번 사용되는 비교적 후대의 본문에 나타나는 용어이다.³⁶ 이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자세히 그들의 준비를 설명하며 그들의 준비를 천천히 보도하며 그들의 계략을 강조한다.³⁷ 7절의 내용 역시 문맥의 흐름을 단절한다. 7절에서는 이들이 히위 족속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갑자기 등장한다.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이라고 언급하는 다른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9절이 유일한데 이 본문은 여호수아 9장을 근거로 편집적으로 첨가된 구절로 보인다.³⁸ 히위 족속에 대한 자료는 성경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다수의 학자는 히위라는 표현은 호리족속에 대한 초기의 언어 혼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한다.³⁹ 실제로 칠십인 역과 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서는 이들을 호리족으로 기술한다.⁴⁰ 히위 족속의 이름의 기원과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중부와 북

35 T. C. Butler, 위의 책, 445.

36 Yitzhak Lee-Sak, 윗글, 124.

37 R. D. Nelson, 위의 책, 133.

38 C. Edenburg, 윗글, 120.

39 E. A. Speiser, “Hivite,” *IDB* 2: 615; R. North, “The Hivites,” *Bib* 54 (1973), 43-62.

40 J. Liver, 윗글, 232.

부 산지로 세겜(창 34:2)과 기브온(수 9:3, 7) 아래와 그 주변(삼하 24:7)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에서가 히위 족속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 에돔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창 36:2). 창세기 34장의 세겜에서의 학살과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의 책략 이야기는 한쪽의 속임으로 깨지게 되는 조약 이야기를 반영한다.⁴¹ 기브온 족속은 구약에서 두 번 더 언급되는데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는 단순히 “기브온 주민들”(יִשְׁבֵי גִבְעוֹן)로 나타나고, 사무엘하 21장 2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들”(כִּי אַסְמִיתָר הָאֹמִרִי)로 나타난다.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이라는 여호수아 9장 7절의 표현은 신명기 20장 17절의 진멸해야 할 가나안 토착민 목록과 여호수아 9장 1-2절의 이스라엘에 맞서는 왕들의 목록과 기브온 족속을 연결하기 위한 신명기적인 편집본문이다.⁴²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으니 어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고 의심을 제기하고, 8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며 고대 근동의 겸손한 외교적 용어를 구사한다.⁴³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오느냐고 묻는다. 여기서 גִּבְעָ (보) 동사의 미완료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흥미 있다. 9a절에서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인다.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무리가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는 12절의 언약의 식사 개념을 수정해 이스라엘 무리가 기브온의 양식을 탐해 취하고 야훼께 묻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아이성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각을 의지하는 잘못에서 기브온과의 조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한다.⁴⁴

41 T. C. Butler, 위의 책, 447.

42 C. Edenburg, 위의 책, 120.

43 T. C. Butler, 위의 책, 448.

44 위의 책, 449.

사흘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자신들의 이웃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흘을 행군하여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여아림에 도착한다. 여기에 기브온의 세 개의 위성 성읍들이 나타난다. 그비라는 에스라 2장 25절과 느헤미야 7장 29절과 제1에스드라서 5장 19절에 나타나는데 기브온에서 서-남서쪽으로 7km 지점에 있는 키르벳-엘-케피라(Khirbet el-Kefirah)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진다.⁴⁵ 브에롯의 뜻은 “우물들”이다. 브에롯은 사무엘하 4장 2절, 에스라 2장 25절, 느헤미야 7장 29절에 나타나며 기브온에서 북동쪽으로 7km 지점의 엘-비레(el-Bireh.)로 이해된다.⁴⁶ 기랏여아림은 약간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 15장 9절, 11절, 60절과 18장 14절과 사사기 18장 12절과 사무엘하 6장 2절과 역대상 13장 6절과 에스라 2장 25절과 느헤미야 7장 29절에 나타난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10km 지점에 있는 텔 데이르 엘 아즈하르(Tell Deir el-Azhar)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진다.⁴⁷ 이 세 지역은 모두 베냐민 지파에 위치한 도시들(18:25, 26, 28)로 포로 이후에도 관심 지역으로 여겨졌다(에 2:25).⁴⁸ 22절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불러 그들의 속임수에 대해 책망하며 판결한다. 23절에서 여호수아는 조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데 기브온은 대를 이어 종이 되도록 저주 형태의 판결을 받는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구별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는 노예가 된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지 않았으므로 기브온이 성전 노예가 되었다는 표현은 다소 시대착오적이다.⁴⁹ 이 구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반영하는 후대의 표현으로 에스라 2장 41-58절과 느헤미야 7장 60-73절에 나오는 성전 노예들인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와 결합한 포

45 위의 책, 450.

46 R. S. Hess, *Joshua* (TOTC;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9), 43.

47 T. C. Butler, 위의 책, 451.

48 R. D. Nelson, 위의 책, 133.

49 T. C. Butler, 위의 책, 452.

로 이후의 편집적 첨가이다.⁵⁰ 24절에서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2장 9-10절의 라합의 신앙고백과 9장 9b-10절의 자신들의 고백과는 다른 신명기의 땅 정복과 헤렘 규정과 관련된 문맥에서 좀 더 발전된 신앙고백을 한다. 이 내용은 이방인과의 언약과 그들과의 교류가 초래할 위험을 염려하며 그들과의 혼인과 문화, 종교적인 교류를 금하며 철저한 구분을 명하는 신명기 7장 1-5절의 헤렘법의 내용과 그 결과로 주어질 땅을 선물로 약속하는 6-16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예후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뢰머(T. Römer)는 신명기 7장을 에스라 9장과 비교하며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본문으로 구분한다.⁵¹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부분(수 9:4-5, 7-9a, 14, 16-17, 22-24)은 기브온과의 조약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기인한 것으로 “피”라는 후대의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으로 강조하며,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나는 기브온의 위성 성읍들의 지명과 연결하며 신명기 20장 17절의 정복해야 할 나라의 명단에 있는 히위와 기브온을 연결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금하여 분리를 명하는 신명기 7장의 헤렘법과 연결해 이들을 제2 성전의 노예로 강등시킬 것을 강조하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 초기의 신명기적 편집층이라 할 수 있다.

5) 포로 이후의 제사장 편집층(수 9:15b, 18-21)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로 등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15b절에서 נְשִׂאֵי הַעֲרָבָה(느시에 하에다/회중 족장들)이 등장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3절과 27절에서는 여호

50 E. A. Knauf, *Josua* (ZBK AT 6; Zürich:Theologische Verlag Zürich, 2008), 95.

51 Thomas C.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New York: T&T Clark, 2007), 170-171; 김경식 옮김,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화적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249-250.

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노예로 살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18-21절에서는 회중 족장들이 같은 명령을 내린다. 9장 15b절, 18-2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잠시 사라진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족장”을 의미하는 נְשִׂיאִים(느시임/족장)은 유목상태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문서 이전의 구두 전승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회중”을 의미하는 עַמּוּ 역시 포로 이전 왕정 초기를 반영하는 표현이다.⁵² 이 초기 전승에 D에서 선호하는 조약(ברית)보다는 제사장 전승에서 선호하는 깎 수 없는 맹세(שבט)에 대한 관심이 추가되고 P 전승의 특징적인 표현인 권위에 도전하는 לוֹן(룬/원망)이라는 표현⁵³이 덧붙여 제사장적인 성격의 본문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제사장 전승은 맹세와 관련해 기브온 족속을 살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부분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리라는 23절의 여호수아의 결정을 완화해 “온 회중”을 위해 일하리라는 표현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이방인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제사장 그룹의 신학적 수정이라 할 수 있다. 에스겔 44장 7-9절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성전을 더럽힌 것을 멸망의 원인으로 강조하며 이들을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이 본문과 연결되는 제사장적인 관심이다. 21절의 “회중”에 대한 관심과 23절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27절에서는 “회중과 제단”에 대한 관심으로 결합해 나타난다. 이 제사장 편집층은 이방인과 조약을 맺은 책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회중 족장들”에게 있었다고 수정하므로 여호수아의 권위를 보호하고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 길는 자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수정하므로 성전의 기록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⁵⁴

52 M. Noth, 위의 책, 55-57.

53 R. D. Nelson, 위의 책, 124.

54 위의 책, 124-125.

6) 포로 이후(페르시아 제국 시대 후기)의 신명기적 최종 첨가(수 9:25-27)

25절 도입부의 히브리어 구문(ועתה הננו בידך)은 문맥을 단절시킨다. 깁슨(J. C. L. Gibson)은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을 의미하는 부사 עתה(아타) 감탄의 불변화사 הנה(히네)는 주로 삽입의 표시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⁵⁵ 2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 우리는 당신의 수중에 있습니다. 당신 소견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25절에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그의 판결과 자비에 자신들을 맡긴다. 26절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손에서 건져 구하다”(ויציל אותם מיד)은 주로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지만(삿 6:9; 9:17; 삼상 4:8; 7:3; 10:18; 12:11; 14:48; 17:37),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사용되었다. 여호수아 9장 27절은 구문론상으로 어색한 표현으로 이루어졌다. 프리츠는 여호수아 9장 18-21절과 함께 이 구절을 P의 편집적 첨가로 구분한다.⁵⁶ 그러나 21절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자가 되지만,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된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신명기적인 표현이다. 27절의 기록자는 9장의 이야기 기술자와 편집자들과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를 구성한 수집가의 최종단계에 있는 편집자일 가능성이 높다.⁵⁷ 이 편집자는 21절의 P 편집층에 나타나는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자라는 표현과 23절의 포로 이후의 신명기적인 편집층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야훼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55 J. C. L. Gibson,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Edinburgh: T. & T. Clark, 1994), 175-76, 72; R. D. Nelson, 위의 책, 60.

56 V. Fritz, 위의 책, 106-107.

57 T. C. Butler, 위의 책, 453.

야훼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충돌하는 두 전승을 결합해 증재하고 있다. 크나우프의 의견을 빌리면 기브온 족속이 운반할 수 있는 나무와 물의 양은 제2 성전에 적합하다.⁵⁸ 그의 의견대로라면 이 27절은 기원전 425년경 혹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의 최종 편집 전에 첨가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신명기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 본문의 최종 편집자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방인에 관해 충돌하는 전승들을 절충하여 통합하며, 여호수아를 예언자⁵⁹ 혹은 왕 혹은 재판관⁶⁰의 역할을 하며 신명기의 헤렘법을 고수하면서도 이방인을 회중 공동체와 예배의 제단에서 배제하고 진멸하려 하는 자들과 맞서 저주받은 이방인을 포용하는 지도자로 묘사한다.⁶¹

3.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주민 이야기에 나타나는 어색한 흐름, 단절, 반복 등은 그 복잡한 형성 과정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초기 구두 전승에서 발전했다. 여기에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통해 주변 세력을 흡수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요시야 시대의 신명기적인 편집자가 기본적인 문서설화를 형성했다(수 9:3, 6, 11-13, 15a). 이 기본 설화에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야훼의 명예 회복을 강조하는 바빌론 포

58 E. A. Knauf, 위의 책, 91.

59 위의 책, 95.

60 T. C. Butler, 위의 책, 452.

61 위의 책, 453.

로기의 편집층(수 9:1-2, 9b-10)이 결합하여 여호수아 전체 설화와 신명기 역사와의 연결을 시도했다. 여기에 바빌론 포로 이후 예후드 공동체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여 기브온과의 조약을 그들의 꾀에 속아서 맺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신명기적인 편집층(수 9:4-5, 7-9a, 14, 16-17, 22-24)이 첨가되어 그들이 성전 노예 신분으로 강등되었음을 강조한다. 포로 이후의 제사장적인 편집자는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로 표현한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성을 옹호하기 위해 이들을 성전이 아닌 회중들을 위해 일하는 자들로 수정하며 이들과 맺은 조약의 책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백성의 족장들에게 있었다고 진술한다(수 9: 15b, 18-21). 여기에 제사장적인 편집과 신명기적인 편집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절충하고, 종합하여 기브온 족속이 백성의 회중들뿐 아니라 성전의 제단을 위해서도 일하는 종이었다고 진술하며 헤렘을 적용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금하며 그들을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신명기적인 최종 편집층이 추가되었다(수 9:25-27). 이를 통해 신명기적인 편집이 요시야 시대뿐 아니라 바빌론 포로기와 포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사장 그룹에서도 신학적 필요에 의해 이 신명기적인 편집층에 반박하며 편집적 첨가를 시도한다. 물론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절충하고 조화하려는 최종적인 편집 시도가 본문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규성, “헤렘 전쟁기사는 과연 진멸만을 말하는가?: 가나안 정복 기사(수 5-11장)를 중심으로,” 『성경과신학』 89집(2019), 1-25.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27권3호(2021), 131-154.

www.kci.go.kr

-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만인가?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8권4호 (2012), 72-95.
- 김성수, “만약 이스라엘이 야훼께 물었다면: 기브온 사건(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이방인의진멸과 구원,” 「성경과신학」 88집(2018), 23-60.
- 방기민,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27권 1호 (2021), 61-96.
- Alt, A. “Josua,” ZAW LXVI(1936), 13-29.
- Boling, R. G. *Joshua* (AB 6; New York: Double Day, 1982).
- Butler, T. C. *Joshua 1-12* (WBC 7A;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 Driver, S. R. *Introduction to the Literary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1913).
- Edenburg, C. “Joshua 9 and Deuteronomy, an Intertextual Conundrum: The Chick-en or the Egg?,” ed. K. Schmid and R. F. Person, JR.,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13-132.
-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88).
- Fritz, V. *Das Buch Josua* (Tübingen: J.C.B. Mohr, 1994).
- Gressmann, H. *Die Anfänge Israels* (Göttingen, 1914).
- Gibson, J. C. L.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Edinburgh: T. & T. Clark, 1994).
- Hess, R. S. *Joshua* (TOTC; Downers Grove, IL: IntereVarsity Press, 2009).
- Knauf, E. A. *Josua* (ZBK AT 6; Zürich: Theologische Verlag Zürich, 2008).
- Lee-Sak, Yitzhak. “Polemical Propaganda of the Golah Community against the Gibeonites: Historical Background of Joshua 9 and 2 Samuel 21 in the Early Persian Period,” *JSOT* 44 (2019), 115-132.
- Liver, J. “The Literary History of Joshua 9,” *JSS* 8 (1963), 227-228.
- Möhlenbrink, K. “Die Landnahmesagen des Buchs Josua,” ZAW LVI (1983), 238-268.
- Nelson, R. D. *Deuteronomy: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2).

- North, R. "The Hivites," *Bib* 54 (1973), 43-62.
- Noth, M. *Das Buch Josua*² (HAT 1/7; Tübingen: J.C.B. Mohr, 1953).
- Römer, T. C.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New York: T&T Clark, 2007). 김경식 옮김,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화적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Simpson, C. A. *The Early Traditions of Israel* (Oxford, 1948).
- Soggin, A. J. *Joshua* (OTL; London: SCM Press, 1972).
- Speiser, E. A. "Hivite," *IDB* 2: 615.
- Steuernagel, C. *Das Buch Josua* (Göttingen, 1899).

검색어

여호수아

기브온

조약

노예

족장들

A Study on the Formation History of the Gibeonites' Narrative (Josh. 9:1-27)

Lee-Eun Woo "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text in order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that appear in Joshua 9, find the early tradition of this text, and trace the editing process up to the final form. Various problems appear in this text: the flow of the story is awkward, the content being repeated or being logically disconnected. To solve this problem, scholars paid attention to the etiologies in this text, tried to find the sources of the Pentateuch or various editorial layers, and conducted archaeological research. In this thesis, the author pays attention to various issues appearing in this text, and tries to trace, in consideration of recent research trends, what

www.kci.go.kr

the original form of the etiologies appearing in this text is, and what kind of editorial layers were incorporated while keeping in mind the historical background.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s that this text was form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First, the story developed from an early oral tradition that the Gibeonites made a treaty with the chieftains of Israel. Second, a Deuteronomic editor in Josiah's era, who wanted to achieve national unity by absorbing neighboring powers and expanding the territory through a treaty with the Gibeonites, formed a basic documentary narrative (Joshua 9:3, 6, 11-13, 15a). Third, the editorial layer of the Babylonian exile (Joshua 9:1-2, 9b-10), which emphasizes the restoration of lost territory and Yahweh's honor, was combined with this basic story to connect the entire story of Joshua wi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Fourth, after the Babylonian captivity, reflecting the attitude of the Yehud community toward the Gentiles, a Deuteronomic layer evaluated the treaty with Gibeon as a negative one by deceiving them through their schemes (Joshua 9:4-5, 7-9a, 14, 16-17, 22-24) – the layer added to emphasize that they were demoted to temple slavery. Fifth, the post-exilic Priestly editor felt uncomfortable with the representation of the Gentiles as servants in the temple and, in order to uphold the holiness of the temple in Jerusalem, modified them to be those who worked for the congregations rather than the temple. It states that it was not Joshua but the chieftains of Israel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treaty with the Gibeonites (Joshua 9:15b, 18-21). Sixth, the final Deuteronomic editorial layer was added, negotiating and synthesizing the conflict between the Priestly edition and the Deuteronomic edition, stating that the Gibeonites were servants not only for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but also for the altars of the temple, forbidding the Israelites from killing the

Gibeonites by applying the Herem, and admonishing to accept them as part of the community (Joshua 9:25-27). Through th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Deuteronomic editing was continuously made not only in the time of Josiah but also in the Babylonian exile and afterwards. The Priestly group also tried to add a redactional layer to refute this Deuteronomic editorial layer for their theological purpose. Consequently, it can be seen that the final editorial attempt to compromise and harmon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s reflected in the text.

Keywords

Joshua

the Gibeonites

Treaty

Servant

Leaders

- 투고일: 2022년 7월 15일
- 심사일: 2022년 8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11일

www.kci.go.kr